

聖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단·루터)



10月8日(水)
1952年(昭和27年)
發行所
基督新報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2623番
編集兼發行人 吳允台
主筆 華田榮澤

社說

한글과基督教

한글날을 당하여 또 마침
오래 기다리던 휴일안에
첫자 성경이 출판된 이때에
우리는 감격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문저 우리는 五백여년 전에
성웅(聖雄) 세종대왕을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정음문자를 주
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보다
도 백여년 전에 로마교회들
을 통하여 六十年전에 신교파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
을 이 민족에게 보내주신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하나님께서는
한글(문자)을 준비해 놓으시
고 복음을 보내신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히랍문화를 미
리 준비해 놓고 그리스도의 단
생과 교회운동이 있게 하신것
처럼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위
하여 한글문자를 준비해 놓으
신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종
대왕의 위대한 공로도 모르고
도리어 한글을 천히 여겨서
스스로 언문(諺文)이라 하여
이를 남의글 한글을 숭상하였
기 때문에 한글은 쇠멸할 지
경에 이르렀고 혼란에 빠졌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있는 한글을 빛
내고 보급시킨 것은 실로 교회

의 힘이었으나 성경과 찬송을
순한글로 번역하여 보급 시키
므로 한글을 보급시키는 큰
역사를 기독교가 수행한것은
비기독교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다행히 주시경선생이후로 한
글과 우리 어문(語文)을 아
끼고 연구하는 열성이있는이들
이 뒤를 이어나서 (뒤에 조
선어학회가 중심으로) 이를
연구하고 바꾸잡고 보급시켰고
한편으로 최육당 이광수를 비
롯하여 신문학 운동이 점차
이러나면서 역시 저들은 그
작품을 순 한글로 쓰므로써
일제의 자심한 압박 밑에서도
그동안 합포로 쓰는 철자와문
법을 바루 잡고 한글의 아름
답고 귀한 가치를 세상에 알

리게되었다.
그러하여 한글문자는 상당히
발달되어가는 반면에 기독교의
한글운동은 오십년전초창기경에
사용한 재래의 표기법에 의하여
번역한성경을 그대로 써오고
겨우 기독교사회에서 약간 중
요서를 철자를 바꾸 써 올뿐
이므로 바른 문자교육을 받은
어린 학생은 성경을 읽을수가
없게되어 결국 교회에는 발달하
는 문화에 뒤 떨어지고 역행
을 하게된것이다. 여기에 가장
많은 애를 쓰고 가슴아프게생
각한이는 우리 한글운동의 온
인으로 서울 안동교회 장로이
고 이윤재(李允宰)선생이니
민족적으로나 교회로서 잊을수
없는 존재이다.

기독교청년들이오들의 사려에
어떻게 처하여 나아가야 할가
함은 수수방관할수 없는 중
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을
토의하여 보자는것이 금년十二
월에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기
독교청년회의다. 그회의의 문제
에는 다음과같은것이있다.
(一) 우리는 왜 사회 문제에 관
심을 가지며 책임을 지려는가
1. 성경은 사회 정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가 현상유지 보수주의 그렇지
아니하면 철저한 무관심인가
2. 일반적으로 기독교자는 사회
정처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가 혹은 무관심할 것인가
(二) 우리가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할때 기독교
적 행동원칙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가
1. 기독교는 열정한 사회체제
를 원리로 지키고 다른 체제
는 배제할것인가
2. 혹은 각개신자가 각이한
때와 장소에서 그장면의 문제
를 검토하고 각자의 책임에서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다만 인
간다운 생활의 가능한 사회실

현에 노력할 것인가
(三) 우리의 사회적책임은 구체
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할것인가
1. 교회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교회의관단체에서 일가
혹은 일반단체와의 관계에서나
이런것을 구별할 기준은 무엇
에 의할것인가
2. 기독교청년이 사회적책임을
진다는 방법은 학교에서 사회
현실을 분석연구하는 학구적인
방법에 머물것이나 적극적인 사
회실천에 나설것인가
(四) 세계의 현상은 어떠한가
이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
미하느냐
1. 현대세계의 특징——과학기
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세
계의 상호의 존속은 감당하나
미소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
느냐 이런 반면에 구라파문화
의 위기, 인간성의 상실이란것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2. 현대는 사회혁명시대라 하
나 각국 각 민족은 어떤 처
지에 있는가

오는 十一月三日부터 四일간
원자한 것은 히로시마(広島)
에서 세계연방 아세아회의(世
界連邦亞細亞會議)가 열린다.
이 회의에는 아세아 각국에서
세계연방운동 대표자들이 출석
하고 회의에서는 리-젤라
루젠(세계연방회장)씨와 영국
보이로 오아씨와 서부독일대표
들도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연방건설
에 관한 원리적인것과 운동의
실천적인 방책이 논의될것인데
이와 동시에 세계연방 실현단
게로 아세아연방 건설에 관한

社會革命段階의現實
基督者の對處는如何
世界基督青年大會議案

世界的當面問題

(一) 각국의 정치 사회에 심교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는 보장되어 있느냐.

世界連邦亞細

十一月初

韓國戰亂中止要請決議

이 회의는 우선 도교에
서 五日간 열릴것인데 세계불
교도연맹회장 말라라, 세이게
라씨의 성명에 의하면 『세계
불교도 연맹의 목적은 불교를
융합하여 전파에 주력하여야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복복을 달성
코저함에 있다. 세계는 2대진
영에 분립하여 공포중에서
정질만 부리고있어 각자의 욕

歸國하면韓神大教授

전락사는 해방되던 해에 일본
신학(현재의 동경신학대학)을
우수한 성직으로 졸업하고 다
음해(一九四六)에 푸린스로
대학에 가서 二년간 교의학
(敎義學)을 전공한후 다시 포
스톤대학에서 교의학과 신학학
을 연구하여 4년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번에 귀국하면 한국신학대
학에 교수로 취임하리라는 데
동경에는 十三일일에 도착하였

讚頌歌의 由來

심
허

金元治牧師結婚

대판 서성교 회
목사 김원치씨는
북부교회 박(和)
집사의 따님 忠買珠
알과 오는 十六日
북부교회당에서 조
기선 목사 주례로
결혼식을 거행한다

스페인정부의 인화책

남 구라파에 있는 스페인은
캐를릭이 정권을 잡고 푸르테
스탄트의 신앙철학을 제압하고
있다함은 본보에도 보도한바
나와 최근 소식에 의하면 새
발대주교는 푸르크정부에
지로서 스페인국내 푸로레스탄트
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취
할것을 요청 하였다. 그 이유
는 지난번에 독일 푸로레스탄
트교회가가 그를 대외장소로 회
담을 빌려주고 사람으로 모든
권리를 보아준데 대한 감격에
기인하고 있다고 되고있다.

總會修養會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강좌에서 「개척파신학」(改革派神學)의 특색은 파악하지 못하고 말았다. 제목을 「개척파신학」의 특색이라고 부쳤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탓인 듯도 하나 너무나 평범한 개념에 불과하였다. 감사는 어느 정도감연 힘고

모여 앉아서 그런 말을 듣고 있다. 그것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교역자들을 의심할 정도였다. 교역자들이 일년에 한번씩 모인다는 귀중한 수양회에 有神술과 화를 듣는다는 것은 교역자들이 평소에 평신도에게 무언가를 말하였을가 무신론을 말하

★
감외재봉에 있어서는 단적으로 말하면 『개역파신학의 특색』이라 하였으나 편역된 내용에 시종되고 만것 같다. 듣는사람을 대루하는이 무척하였다고 할지라도 오짜다목사의 논리로서 전부는 보일수 없었을것이다.

나
왔네
부친의
음성
심여서
먼길로

양
때를
목자의
앞
있네
이몸은
불효막심하여

합동찬송 제 二五 六 卷
떠나서
길
어버린나
소리
심여서
순종치

이 찬송은 一八四二년에 처음으로
간행된 「광야의 노래들」이라
는 그의 성가집에 들어있는데
본래 저자가 붙인 이 찬송의
제목은 「잃었다. 그러나 찾았다」
라고 하였다. 원저는 五절로
되어 있는데 요리 찬송에는 원저

갈빈주의를 고조하였다는 것은 듣는 우리가 갈빈주의를 배운다는 면으로 들었다면 음감이 없었을듯도 하나 결국 빈불나무 울리고 루터와 트를 너무 지나치게 희비었다 오까다독자는 「개혁파」라는 말은 루테스단트 전체를 의미하는 한다는 이시와라(石原) 학사의 해설을(哲學辭典所在) 지지하고 하였으나 장노파만을 개혁파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은 부정 못할 사실이었다.

만약 그것은 시인한다고 할지라도 개혁파특성에서 개혁파 루터—를 찾다는 점은 우에서 말만바와같이 갈빈지상주의의 파도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광

한글 위대한 종교개혁 계승자

(4)

는 것은 이런 문제를 밖에서 볼 수 없는 것 같았다.

우리 본과위원회에서 문제된 것은「교회」는 전제주의와는 차 있어야 한다」는 문제였는데 전제주의라는 점이 명확하지 아니하였었다. 이 같은 미분명한 의구심(疑心) 때문에 회의에서는 일단의 그 결과나 결과가 그대로「오늘의 교회」의 조직은 사회 모든 주의 필요를 감지한 유령(靈體)이다」「사회적 실상주의, 문화주의, 개인주의, 개인적 이익주의, 등도 그런 것이다.

여하간 전제주의만을 따로 취급하지 아니함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은 그 여자를 위하여 기도하
는일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
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
날 저녁의 일이었다. 전파 작
이 기도회로 모였는데 가만히
문이 열리고 헬렌, 비가 안
들어왔다. 그는 눈을 힐끗
이 아래로 내려 살았고 얼
은 조용하고 창백하였다. 얼
보아서 그의 얼굴 표정에는
그의 내심에 있는 심한 고미
울 말해주는 무엇이 있었다.
그는 고요히 자리에 앉았다.
기도회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찬송가를 두서너절 노래 했
고二三인이 번갈아 기도했다.
리고는 그들이 모용하는식대
로 각각 자기가 제일 좋아하
는 찬송을 몇장 골라서 그조
의 몇몇식을 되풀이해서 불렀

송 몇錠을 다 부른후에는
속하여 다른사람이 또 그가
팔른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그다음 사람이 또 그렇게
는 것이었다. 얼마후에 찬송소리는
가 중단되자 장내는 극히
요해졌다. 그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마루를 내려다 보는
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리
나 목자의 소리 심하여
종치 않았네
그의 목소리는 비교적 낮았소
나 그러나 분명하였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마디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어 흔들었다. 그는 그
작곡인 이 아름다운 찬송의
그다음 다른 한절을 뒤부터
여 불렀다.

(1)

一九五〇年十月一日부터
一九五二年八月末日까지

一九五〇年
十月 是회 慶五回奉회를 釜道교회의당에서 開會함
二十二日 배부부장관 윤치영씨 전지우부장관
장택상씨 전홍보처장 김동성씨의 시국대담연
회를 開會함
十二月五日 Y M C A 건물일부 수리작공함
二十五日 크리스마스축하회
一九五一年
一月
二月九日 일본전국기독교년회 主事총회참가
二十五日 전교정노동부장 이대위원장 연회개회
三月十六日 이대위원장 본회이사장 취임함
三十日 본회관 사생들 김천국 이종영 오동
종 김충일 홍이삼 이충성 윤치중
조정모 김우용
四月 本국각지방기독교년회 총무 이용씨 肅윤씨
씨 박영창씨 남해수씨
五月十三日 한국노연합회 파견四人 총무 김연회개회
二十九日 영이성결개강
六月
七月一日 문선호여사 감연회개회
二十二日 대한기독교종교협의회가 본회관강당을
반환함
八月七日 일본각지 캠퍼스지에 전국적으로 학생六
명을 참가시킴
八月七日 신임주일대사 신성모각하부처 환영회를
小石川 仙鶴정에서개회
十日 전평양기독교청년회총무 박영창씨 본회
협동총무로 결정함
三十日 靜岡縣 東山莊第五十一회 동맹위원회 참가함
九月四日 임요성목사 가나다에서 귀국도중 내방환영회
개회
一日 국회위원황성수씨 감연회개회
十一日 본국노연합회 협동총무 핏치박사내방
十三日 동막사 환영회개회
十七日 본회과각종 세면소 수리작공함
二十三日 庫丘在郷土人會 위안회 개회함
十月六日 본회관 전기배선 原班器 大수리함
十月十一日 식당일부물 사무실로 수리작공함
二十五日 본회관 본회관하추 四개실에 가스설치작
공함
十二月十日 인도東兩기독교청년회준비회 본국노대표 김
천배간사 환영회개회함
二十三日 크리스마스축하회를 거행하고
동시에 본국전제민주제를 불 거출함

傳道欄

放浪兒의感激 (1)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는
四十七개가 넘는데 누가복음
五章十一절이하의 탕자의 비
유는 그중에서 진주(眞珠)라
고 일가를 붙여 붙여놓았다.
어려서부터 탕자라만으로
지나다가 『제 아버지의 눈도
고요히 감개못한자』 불초
심한 나는 이 비유에서 너무나
배 저린 교훈을 받았다.
어떤 때 예수께서는 유대인중
에서 쓸데없는 자들이 여기를
박는 세리와 죄인들과 서사를
같이 하면서(바리새인과 학자
들도 둘러 있었는데)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였던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
었는데 그 둘째아들이 하로는
『아버지 내게 주실 재산을
나누어 주시오』 하였다. 아버
지는 둘째아들을 화요구대로 나
누어 주었다. 둘째아들은 그것
을 팔아가지고 청년다운 여
친 뜻을 품고 먼 나라로 여
해를 떠났다. 그러나 여러가지
유혹에 걸려 큰 성공은 고사
하고 가치고갔던 재산의 전부
를 써버렸다. 설상가상(雪上加
霜)으로 그때에 그곳에 기근이
있어서 호구지책(湖口之策)도
해결하기 어려웠다. 생각하니
마에 그 지방사람에게 해결하
였더니 들에 가서 도야지들
를라 하기에 주어진 참자에

在日韓國基督教界의現狀

牧師 李鐘聲

내가 보기에는 現在 敎會靑
年이 大部分은 敎會指導者들에
게 期望을 가지지 않는것같다
이것이 事實일것같은데 이 점
만 불지라도 우리敎會內에는
革命의要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수있다. 革命運動이 일어나
자면 여러가지 前提조건이 必
要하다. 그 가운데 가장 重要한
것을 몇가지말하자면 民衆의 指導
者에 對한 充分의 指導者의
무능과 對한 오직 혁명사상에
세계사조와 共通되는점이 있어
야 할것등 이와같은 사회혁명
의식을 그냥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敎會內部를
다루는것은 물론이거니와 信者
의 中心이되는 靑年들이 現指

다. 나를 일군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하리라 결심하
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다.
남마나 집 떠난 자식을 기
다리던 아버지는 멀리남루한차
림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나와 탕자
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마
쳤다.
아버지의 체면이나 가문의
부끄러움은 생각지도 아니하였
다. 하인들을 불러 제일 좋은옷
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
락지를 끼우고 할례 신을 신
기고 살진 송아지를 고으리라

導者에게 신뢰하지않는것은 事
實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靑年靑
年이 忠實한 信者가 되며 참
다운 복음신앙생활을 할려고
혁신운동이 일어나지않는것은
무슨가닭일까? 世界이 21세
기에도 뒤처지지 않을만한
재능과 용기와 實力을 가지고
있다고 자칭하면서도 무슨理由
로 七年間이나 革新은 커녕
낮장만자는 信者生活를 하고있
을까?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몇가지 큰 원인이있는듯하다.
(一) 聖書에對한 知識의 결핍(二) 敎會
人의 自覺의 결핍(三) 복음과 世界
와의 關係의 理解의 결핍 (四) 信
者의 關係의 理解의 결핍이다.

(나중남)

신앙생활에 中心은 忠實한일이
다. 聖書愛讀에있다. 「가무려
배마른과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에게 항상 자양분이 풍부
한 영적양식을 주는것은 聖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靑年들
은 얼마나 聖書를 읽는지
間이다. 내가 敎會靑年들에게
해 그점에 關하여 研究한바는
있다. 新約을 通讀한자는 하
나도없고 舊約을 通讀한자도
없고 新約을 전부읽은자도 없다
단지 新約을 여기저기 몇군데
를 읽었다는것 뿐이었다. 이러
한 것으로서 全體를 斷斷한것
은 正當치못하나 하여간 一
의 것으로볼때 聖書知識이 너
무 부족한것이다. 이때서는 어
려움이 많은 신앙생활에있어서
어대서 위로를 받을수있을가
되를변해야 가슴이 저릴때
시편二十三篇을 읊은다윈
한 운명에 빠졌을때라도 신의
와 인내로서 시련을 견뎌



敎會學校
敎師講座

指導의根本問題 (11)

魯安理

종교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무관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이
우리는 이것으로 인생에서 패
배나 좌절 받음이 없이 현실
을 처하며 나갈수 있는것이
교양 있는 시민은 난관하고
흔돈한 형편도 헤치고 나가는
혼연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교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어
떤 빛을 던져 줄수가 있을까
후년, 빈곤, 인종문제, 빈자와
부자에 대한 법의 불평등 음
주문제 생활필수품배급문제 사

처, 건강상태, 교회협력문제, 교
회의 통일문제, 리크리에이션, 성
경교육, 종교교육, 국제문제, 국
제경제문제, 등등 일일이 매거
할 겨를이 없을만큼 복잡한
문제가 우리를 향하여 제출되
어 있는것이다.
이때까지의 종교교육 교사의
대부분이 종교가 모든 인류 문
명의 분야에서 도덕적인 근본
성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의 종교교육을 반성하여

보건대 공과책을 가르쳤다고는
할수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도덕적 협력 그리고 또
사람 서로끼리의 신뢰등을 형
성하는 교육이라고 부를수 없
는것이있다고 할수 밖에 없다
우리의 생활은 현실적인것이
다. 개인적 사회적 생활이
직면하는 문제는 대단히 복잡
하고도 또 현악한 현실이다.
종교는 이러한우리의 현실문제
를 본래있게 또 활발하게 취
급할수 있어야 할것이다. 그렇
지 않고서는 예수의 종교는
현대에 있어서 산 역할을 할
수 없을것이다.
이상 예를 본다면 클라쓰의
프로그람이 그 상화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교실에만

음에 의한자에게 한양없는 위
로와 격려를 주는 이사야 예
언을 읽지 않고 어떻게
알수있을까?

예언을 읽지 않고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게라야나, 다윗이
나, 이사야나, 예수나, 베드로나
바울조차 한두말의 예언이
없었다. 그러나 그 예언의
지혜를 읽을 때
그는 생각지 않고 초도의
살아지고 말 유해한 학문
읽기만 하고 있다.

예언을 주야로 읽으므로
미아마 환상과 같이 보이는
서의 인물이나 진리가 二半
이상의 시간의 제한을 벗어나
서 독자적 전에 여실히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일반교인은 물론
이요 청년들도 기독교리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
다. 지식이 부족함으로 기
독교의 본질과 상이점을 알
지 못하며 기독교와 유신론을
구별할 수 없으며 철학문학과
독교신학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
고 종교는 다 한가지이다. 도
그는 기독교는 무력이다. 종
교개혁은 문예부흥운동이 결
이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다. 기독교리를 좀더 잘 알
았더라면 교회를 떠나간 청년
들의 대부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물론은 교회인의 자각이 결
핍한 점이다. 교회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활로서 유
지하여가는 교회에 생명선을
주어야 한다. 이 능력은 저
수의 안에서 역사하였던 힘이
오에 수해서 각 사람의 속
에도 이런 능력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지 않았던가.

연구 문제
1. 학생의 흥미, 문제, 요구
그들의 생활상에서 어떻게
교사의 교육활동이 발생하는가
2. 여러분의 학생의 흥미는
어떤 방법으로—책 그림 자
연인생문제같은 것—확장되었
는가? 다음 학기에는 이점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겠는가?
3. 다음 석달 동안 여러분의
사용할 교안을 보고하고 그것
으로 어린이의 생활에 어떤
효용을 주게 될 것인가를 말하라

例話 香氣 自己中心人間들

어떤 주일학교에서 된 아
기다. 여러날 비가 오지 아니하
여 농가에서 정하는 것을
학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 놓아 잘 되게 하소서」하
였다. 그 날에 있던 세력집 아
이는 「비가 오면 남의 밭을
시치들일 수 없으니 비 오지 말
기를 바랍니다」하였다. 이 말
을 드는 등 두들기의 비가 오면
작되었다. 「설요일에는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아니나 우리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인생
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다. 사람은 이 생명을 존중하
고 교회에 전 생명이 걸려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제보담도
호적보담도 이 생명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종교가 등용의 기전에 호적을
물기 전에 벌써 이생명은 등
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대 청년은 이 생명을 예상으로
히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생
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이해
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채무도 이해하지 않고 인
제인지 발전제 래도를 가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
다. 교회 모든 집회에 출석상
자각을 갖아야 하겠다.

信仰 一路를 강조

南美反共舊教新聞

남미국 포리비아국(國)에는
최근에 공산당이 정식으로 결
성되었다는데 포리비아 카톨릭
신문은 이에 관련하여 사실에
공산주의를 막을 길을 오직 종
교에 있다고 하며 신도의 실천
생활을 강조하며 요지 다음과
같이 논술 하였다.
만약 종교인들이 오늘의 노
동자에게 대하여 현재의 사악
한 사회상태일지라도 노동자는
어떻던 복종하여야 한다고만 하
는 등의 감설을 한다면 종교는
완전히 민중에게 마취제와 변의
작용만이 될 것이고 공산주의자
의 말이 정의(正義)라는 인
식을 주는 데 이르고 말 것이다
종교인은 교회안에서만 종교
적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천국에
오를 듯한 생각을 청산하고 평

一九五二年
一月四日 本국 Y연합회총무 장성영목사 내무장관회의
二月十三日 本국 Y연합회총무 장성영목사 내무장관회의
二十六日 本국 Y연합회총무 장성영목사 내무장관회의
三十日 本국 Y연합회총무 장성영목사 내무장관회의
三月 本국 Y연합회총무 장성영목사 내무장관회의
四月一日 本국 Y연합회총무 장성영목사 내무장관회의
五月八日 本국 Y연합회총무 장성영목사 내무장관회의
七月十三日 本국 Y연합회총무 장성영목사 내무장관회의
八月七일 本국 Y연합회총무 장성영목사 내무장관회의
九月九日 本국 Y연합회총무 장성영목사 내무장관회의
十月二十八日 本국 Y연합회총무 장성영목사 내무장관회의
十一月二十八日 本국 Y연합회총무 장성영목사 내무장관회의
十二月二十八日 本국 Y연합회총무 장성영목사 내무장관회의

李總務奉給條收支狀計算表

이총무봉급조수지	상항	이총무봉급조수지	상항
一九四六年 이후로	一九四七年	一九四六年 이후로	一九四七年
一九四七年	一九四八年	一九四七年	一九四八年
一九四八年	一九四九年	一九四八年	一九四九年
一九四九年	一九五〇年	一九四九年	一九五〇年
一九五〇年	一九五一年	一九五〇年	一九五一年
一九五一年	一九五二年	一九五一年	一九五二年
一九五二年	一九五三年	一九五二年	一九五三年
一九五三年	一九五四年	一九五三年	一九五四年
一九五四年	一九五五年	一九五四年	一九五五年
一九五五年	一九五六年	一九五五年	一九五六年
一九五六年	一九五七年	一九五六年	一九五七年
一九五七年	一九五八年	一九五七年	一九五八年
一九五八年	一九五九年	一九五八年	一九五九年
一九五九年	一九六〇年	一九五九年	一九六〇年
一九六〇年	一九六一年	一九六〇年	一九六一年
一九六一年	一九六二年	一九六一年	一九六二年
一九六二年	一九六三年	一九六二年	一九六三年
一九六三年	一九六四年	一九六三年	一九六四年
一九六四年	一九六五年	一九六四年	一九六五年
一九六五年	一九六六年	一九六五年	一九六六年
一九六六年	一九六七年	一九六六年	一九六七年
一九六七年	一九六八年	一九六七年	一九六八年
一九六八年	一九六九年	一九六八年	一九六九年
一九六九年	一九七〇年	一九六九年	一九七〇年
一九七〇年	一九七一年	一九七〇年	一九七一年
一九七一年	一九七二年	一九七一年	一九七二年
一九七二年	一九七三年	一九七二年	一九七三年
一九七三年	一九七四年	一九七三年	一九七四年
一九七四年	一九七五年	一九七四年	一九七五年
一九七五年	一九七六年	一九七五年	一九七六年
一九七六年	一九七七年	一九七六年	一九七七年
一九七七年	一九七八年	一九七七年	一九七八年
一九七八年	一九七九年	一九七八年	一九七九年
一九七九年	一九八〇年	一九七九年	一九八〇年
一九八〇年	一九八一年	一九八〇年	一九八一年
一九八一年	一九八二年	一九八一年	一九八二年
一九八二年	一九八三年	一九八二年	一九八三年
一九八三年	一九八四年	一九八三年	一九八四年
一九八四年	一九八五年	一九八四年	一九八五年
一九八五年	一九八六年	一九八五年	一九八六年
一九八六年	一九八七年	一九八六年	一九八七年
一九八七年	一九八八年	一九八七年	一九八八年
一九八八年	一九八九年	一九八八年	一九八九年
一九八九年	一九九〇年	一九八九年	一九九〇年
一九九〇年	一九九一年	一九九〇年	一九九一年
一九九一年	一九九二年	一九九一年	一九九二年
一九九二年	一九九三年	一九九二年	一九九三年
一九九三年	一九九四年	一九九三年	一九九四年
一九九四年	一九九五年	一九九四年	一九九五年
一九九五年	一九九六年	一九九五年	一九九六年
一九九六年	一九九七年	一九九六年	一九九七年
一九九七年	一九九八年	一九九七年	一九九八年
一九九八年	一九九九年	一九九八年	一九九九年
一九九九年	二〇〇〇年	一九九九年	二〇〇〇年
二〇〇〇年	二〇〇一年	二〇〇〇年	二〇〇一年
二〇〇一年	二〇〇二年	二〇〇一年	二〇〇二年
二〇〇二年	二〇〇三年	二〇〇二年	二〇〇三年
二〇〇三年	二〇〇四年	二〇〇三年	二〇〇四年
二〇〇四年	二〇〇五年	二〇〇四年	二〇〇五年
二〇〇五年	二〇〇六年	二〇〇五年	二〇〇六年
二〇〇六年	二〇〇七年	二〇〇六年	二〇〇七年
二〇〇七年	二〇〇八年	二〇〇七年	二〇〇八年
二〇〇八年	二〇〇九年	二〇〇八年	二〇〇九年
二〇〇九年	二〇一〇年	二〇〇九年	二〇一〇年
二〇一〇年	二〇一一年	二〇一〇年	二〇一一年
二〇一一年	二〇一二年	二〇一一年	二〇一二年
二〇一二年	二〇一三年	二〇一二年	二〇一三年
二〇一三年	二〇一四年	二〇一三年	二〇一四年
二〇一四年	二〇一五年	二〇一四年	二〇一五年
二〇一五年	二〇一六年	二〇一五年	二〇一六年
二〇一六年	二〇一七年	二〇一六年	二〇一七年
二〇一七年	二〇一八年	二〇一七年	二〇一八年
二〇一八年	二〇一九年	二〇一八年	二〇一九年
二〇一九年	二〇二〇年	二〇一九年	二〇二〇年
二〇二〇年	二〇二一年	二〇二〇年	二〇二一年
二〇二一年	二〇二二年	二〇二一年	二〇二二年
二〇二二年	二〇二三年	二〇二二年	二〇二三年
二〇二三年	二〇二四年	二〇二三年	二〇二四年
二〇二四年	二〇二五年	二〇二四年	二〇二五年
二〇二五年	二〇二六年	二〇二五年	二〇二六年
二〇二六年	二〇二七年	二〇二六年	二〇二七年
二〇二七年	二〇二八年	二〇二七年	二〇二八年
二〇二八年	二〇二九年	二〇二八年	二〇二九年
二〇二九年	二〇三〇年	二〇二九年	二〇三〇年
二〇三〇年	二〇三一年	二〇三〇年	二〇三一年
二〇三一年	二〇三二年	二〇三一年	二〇三二年
二〇三二年	二〇三三年	二〇三二年	二〇三三年
二〇三三年	二〇三四年	二〇三三年	二〇三四年
二〇三四年	二〇三五年	二〇三四年	二〇三五年
二〇三五年	二〇三六年	二〇三五年	二〇三六年
二〇三六年	二〇三七年	二〇三六年	二〇三七年
二〇三七年	二〇三八年	二〇三七年	二〇三八年
二〇三八年	二〇三九年	二〇三八年	二〇三九年
二〇三九年	二〇四〇年	二〇三九年	二〇四〇年
二〇四〇年	二〇四一年	二〇四〇年	二〇四一年
二〇四一年	二〇四二年	二〇四一年	二〇四二年
二〇四二年	二〇四三年	二〇四二年	二〇四三年
二〇四三年	二〇四四年	二〇四三年	二〇四四年
二〇四四年	二〇四五年	二〇四四年	二〇四五年
二〇四五年	二〇四六年	二〇四五年	二〇四六年
二〇四六年	二〇四七年	二〇四六年	二〇四七年
二〇四七年	二〇四八年	二〇四七年	二〇四八年
二〇四八年	二〇四九年	二〇四八年	二〇四九年
二〇四九年	二〇五〇年	二〇四九年	二〇五〇年
二〇五〇年	二〇五一年	二〇五〇年	二〇五一年
二〇五一年	二〇五二年	二〇五一年	二〇五二年
二〇五二年	二〇五三年	二〇五二年	二〇五三年
二〇五三年	二〇五四年	二〇五三年	二〇五四年
二〇五四年	二〇五五年	二〇五四年	二〇五五年
二〇五五年	二〇五六年	二〇五五年	二〇五六年
二〇五六年	二〇五七年	二〇五六年	二〇五七年
二〇五七年	二〇五八年	二〇五七年	二〇五八年
二〇五八年	二〇五九年	二〇五八年	二〇五九年
二〇五九年	二〇六〇年	二〇五九年	二〇六〇年
二〇六〇年	二〇六一年	二〇六〇年	二〇六一年
二〇六一年	二〇六二年	二〇六一年	二〇六二年
二〇六二年	二〇六三年	二〇六二年	二〇六三年
二〇六三年	二〇六四年	二〇六三年	二〇六四年
二〇六四年	二〇六五年	二〇六四年	二〇六五年
二〇六五年	二〇六六年	二〇六五年	二〇六六年
二〇六六年	二〇六七年	二〇六六年	二〇六七年
二〇六七年	二〇六八年	二〇六七年	二〇六八年
二〇六八年	二〇六九年	二〇六八年	二〇六九年
二〇六九年	二〇七〇年	二〇六九年	二〇七〇年
二〇七〇年	二〇七一年	二〇七〇年	二〇七一年
二〇七一年	二〇七二年	二〇七一年	二〇七二年
二〇七二年	二〇七三年	二〇七二年	二〇七三年
二〇七三年	二〇七四年	二〇七三年	二〇七四年
二〇七四年	二〇七五年	二〇七四年	二〇七五年
二〇七五年	二〇七六年	二〇七五年	二〇七六年
二〇七六年	二〇七七年	二〇七六年	二〇七七年
二〇七七年	二〇七八年	二〇七七年	二〇七八年
二〇七八年	二〇七九年	二〇七八年	二〇七九年
二〇七九年	二〇八〇年	二〇七九年	二〇八〇年
二〇八〇年	二〇八一年	二〇八〇年	二〇八一年
二〇八一年	二〇八二年	二〇八一年	二〇八二年
二〇八二年	二〇八三年	二〇八二年	二〇八三年
二〇八三年	二〇八四年	二〇八三年	二〇八四年
二〇八四年	二〇八五年	二〇八四年	二〇八五年
二〇八五年	二〇八六年	二〇八五年	二〇八六年
二〇八六年	二〇八七年	二〇八六年	二〇八七年
二〇八七年	二〇八八年	二〇八七年	二〇八八年
二〇八八年	二〇八九年	二〇八八年	二〇八九年
二〇八九年	二〇九〇年	二〇八九年	二〇九〇年
二〇九〇年	二〇九一年	二〇九〇年	二〇九一年
二〇九一年	二〇九二年	二〇九一年	二〇九二年
二〇九二年	二〇九三年	二〇九二年	二〇九三年
二〇九三年	二〇九四年	二〇九三年	二〇九四年
二〇九四年	二〇九五年	二〇九四年	二〇九五年
二〇九五年	二〇九六年	二〇九五年	二〇九六年
二〇九六年	二〇九七年	二〇九六年	二〇九七年
二〇九七年	二〇九八年	二〇九七年	二〇九八年
二〇九八年	二〇九九年	二〇九八年	二〇九九年
二〇九九年	二一〇〇年	二〇九九年	二一〇〇年
二一〇〇年	二一〇一年	二一〇〇年	二一〇一年
二一〇一年	二一〇二年	二一〇一年	二一〇二年
二一〇二年	二一〇三年	二一〇二年	二一〇三年
二一〇三年	二一〇四年	二一〇三年	二一〇四年
二一〇四年	二一〇五年	二一〇四年	二一〇五年
二一〇五年	二一〇六年	二一〇五年	二一〇六年
二一〇六年	二一〇七年	二一〇六年	二一〇七年
二一〇七年	二一〇八年	二一〇七年	二一〇八年
二一〇八年	二一〇九年	二一〇八年	二一〇九年
二一〇九年	二一〇一〇年	二一〇九年	二一〇一〇年
二一〇一〇年	二一〇一一年	二一〇一〇年	二一〇一一年
二一〇一一年	二一〇一二年	二一〇一一年	二一〇一二年
二一〇一二年	二一〇一三年	二一〇一二年	二一〇一三年
二一〇一三年	二一〇一四年	二一〇一三年	二一〇一四年
二一〇一四年	二一〇一五年	二一〇一四年	二一〇一五年
二一〇一五年	二一〇一六年	二一〇一五年	二一〇一六年
二一〇一六年	二一〇一七年	二一〇一六年	二一〇一七年
二一〇一七年	二一〇一八年	二一〇一七年	二一〇一八年
二一〇一八年	二一〇一九年	二一〇一八年	二一〇一九年
二一〇一九年	二一〇二〇年	二一〇一九年	二一〇二〇年
二一〇二〇年	二一〇二一年	二一〇二〇年	二一〇二一年
二一〇二一年	二一〇二二年	二一〇二一年	二一〇二二年
二一〇二二年	二一〇二三年	二一〇二二年	二一〇二三年
二一〇二三年	二一〇二四年	二一〇二三年	二一〇二四年
二一〇二四年	二一〇二五年	二一〇二四年	二一〇二五年
二一〇二五年	二一〇二六年	二一〇二五年	二一〇二六年
二一〇二六年	二一〇二七年	二一〇二六年	二一〇二七年
二一〇二七年	二一〇二八年	二一〇二七年	二一〇二八年
二一〇二八年	二一〇二九年	二一〇二八年	二一〇二九年
二一〇二九年	二一〇三〇年	二一〇二九年	二一〇三〇年
二一〇三〇年	二一〇三一年	二一〇三〇年	二一〇三一年
二一〇三一年	二一〇三二年	二一〇三一年	二一〇三二年
二一〇三二年	二一〇三三年	二一〇三二年	二一〇三三年
二一〇三三年	二一〇三四年	二一〇三三年	二一〇三四年
二一〇三四年	二一〇三五年	二一〇三四年	二一〇三五年
二一〇三五年	二一〇三六年	二一〇三五年	二一〇三六年
二一〇三六年	二一〇三七年	二一〇三六年	二一〇三七年
二一〇三七年	二一〇三八年	二一〇三七年	二一〇三八年
二一〇三八年	二一〇三九年	二一〇三八年	二一〇三九年
二一〇三九年	二一〇四〇年	二一〇三九年	二一〇四〇年
二一〇四〇年	二一〇四一年	二一〇四〇年	二一〇四一年
二一〇四一年	二一〇四二年	二一〇四一年	二一〇四二年
二一〇四二年	二一〇四三年	二一〇四二年	二一〇四三年
二一〇四三年	二一〇四四年	二一〇四三年	二一〇四四年
二一〇四四年	二一〇四五年	二一〇四四年	二一〇四五年
二一〇四五年	二一〇四六年	二一〇四五年	二一〇四六年
二一〇四六年	二一〇四七年	二一〇四六年	二一〇四七年
二一〇四七年	二一〇四八年	二一〇四七年	二一〇四八年
二一〇四八年	二一〇四九年	二一〇四八年	二一〇四九年
二一〇四九年	二一〇五〇年	二一〇四九年	二一〇五〇年
二一〇五〇年	二一〇五一年	二一〇五〇年	二一〇五一年
二一〇五一年	二一〇五二年	二一〇五一年	二一〇五二年
二一〇五二年	二一〇五三年	二一〇五二年	二一〇五三年
二一〇五三年	二一〇五四年	二一〇五三年	二一〇五四年
二一〇五四年	二一〇五五年	二一〇五四年	二一〇五五年
二一〇五五年	二一〇五六年	二一〇五五年	二一〇五六年
二一〇五六年	二一〇五七年	二一〇五六年	二一〇五七年
二一〇五七年	二一〇五八年	二一〇五七年	二一〇五八年
二一〇五八年	二一〇五九年	二一〇五八年	二一〇五九年
二一〇五九年	二一〇六〇年	二一〇五九年	二一〇六〇年
二一〇六〇年	二一〇六一年	二一〇六〇年	二一〇六一年
二一〇六一年	二一〇六二年	二一〇六一年	二一〇六二年
二一〇六二年	二一〇六三年	二一〇六二年	二一〇六三年
二一〇六三年	二一〇六四年	二一〇六三年	二一〇六四年
二一〇六四年	二一〇六五年	二一〇六四年	二一〇六五年
二一〇六五年	二一〇六六年	二一〇六五年	二一〇六六年
二一〇六六年	二一〇六七年	二一〇六六年	二一〇六七年
二一〇六七年	二一〇六八年	二一〇六七年	二一〇六八年
二一〇六八年	二一〇六九年	二一〇六八年	二一〇六九年
二一〇六九年	二一〇七〇年	二一〇六九年	二一〇七〇年
二一〇七〇年	二一〇七一年	二一〇七〇年	二一〇七一年
二一〇七一年	二一〇七二年	二一〇七一年	二一〇七二年
二一〇七二年	二一〇七三年	二一〇七二年	二一〇七三年
二一〇七三年	二一〇七四年	二一〇七三年	二一〇七四年
二一〇七四年	二一〇七五年	二一〇七四年	二一〇七五年
二一〇七五年	二一〇七六年	二一〇七五年	二一〇七六年
二一〇七六年	二一〇七七年	二一〇七六年	二一〇七七年
二一〇七七年	二一〇七八年	二一〇七七年	二一〇七八年
二一〇七八年	二一〇七九年	二一〇七八年	二一〇七九年
二一〇七九年	二一〇八〇年	二一〇七九年	二一〇八〇年
二一〇八〇年	二一〇八一年	二一〇八〇年	二一〇八一年
二一〇八一年	二一〇八二年	二一〇八一年	二一〇八二年
二一〇八二年	二一〇八三年	二一〇八二年	二一〇八三年
二一〇八三年	二一〇八四年	二一〇八三年	二一〇八四年
二一〇八四年	二一〇八五年	二一〇八四年	二一〇八五年
二一〇八五年	二一〇八六年	二一〇八五年	二一〇八六年
二一〇八六年	二一〇八七年	二一〇八六年	二一〇八七年
二一〇八七年	二一〇八八年	二一〇八七年	二一〇八八年
二一〇八八年	二一〇八九年	二一〇八八年	二一〇八九年
二一〇八九年	二一〇九〇年	二一〇八九年	二一〇九〇年
二一〇九〇年	二一〇九一年	二一〇九〇年	二一〇九一年
二一〇九一年	二一〇九二年	二一〇九一年	二一〇九二年
二一〇九二年	二一〇九三年	二一〇九二年	二一〇九三年
二一〇九三年	二一〇九四年	二一〇九三年	二一〇九四年
二一〇九四年	二一〇九五年	二一〇九四年	二一〇九五年
二一〇九五年	二一〇九六年	二一〇九五年	二一〇九六年
二一〇九六年	二一〇九七年	二一〇九六年	二一〇九七年
二一〇九七年	二一〇九八年	二一〇九七年	二一〇九八年
二一〇九八年	二一〇九九年	二一〇九八年	二一〇九九年
二一〇九九年	二一〇一〇〇年	二一〇九九年	二一〇一〇〇年
二一〇一〇〇년	二一〇一〇一年	二一〇一〇〇년	二一〇一〇一年
二一〇一〇一年	二一〇一〇二年	二一〇一〇一年	二一〇一〇二年
二一〇一〇二年	二一〇一〇三年	二一〇一〇二年	二一〇一〇三年
二一〇一〇三年	二一〇一〇四年	二一〇一〇三年	二一〇一〇四年
二一〇一〇四年	二一〇一〇五年	二一〇一〇四年	二一〇一〇五年
二一〇一〇五年	二一〇一〇六年	二一〇一〇五年	二一〇一〇六年
二一〇一〇六年	二一〇一〇七年	二一〇一〇六年	二一〇一〇七年
二一〇一〇七年	二一〇一〇八年	二一〇一〇七年	二一〇一〇八年
二一〇一〇八年	二一〇一〇九年	二一〇一〇八年	二一〇一〇九年
二一〇一〇九年	二一〇一〇一〇年	二一〇一〇九年	二一〇一〇一〇年
二一〇一〇一〇年	二一〇一〇一一年	二一〇一〇一〇年	二一〇一〇一一年
二一〇一〇一一年	二一〇一〇一二年	二一〇一〇一一年	二一〇一〇一二年
二一〇一〇一二年	二一〇一〇一三年	二一〇一〇一二年	二一〇一〇一三年
二一〇一〇一三年	二一〇一〇一四年	二一〇一〇一三年	二一〇一〇一四年
二一〇一〇一四年	二一〇一〇一五年	二一〇一〇一四年	二一〇一〇一五年
二一〇一〇一五年	二一〇一〇一六年	二一〇一〇一五年	二一〇一〇一六年
二一〇一〇一六年	二一〇一〇一七年	二一〇一〇一六年</	



한글모노타입 (인쇄용)

우리는共產主義를

支持할理由가있을가

(4)

존 · 벤 · 넬

한글날의 소청

기독교인으로서 공산주의가 정권잡는것을 막아낼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심히 민감케하는 문제다. 그는 무엇보다도 교회들을 내적으로도 강력하게 하고 또 자기들은 물론 다른 모든 교회들까지도 어떤 작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어떤 임시적인 보조책을 취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의 교회에 대한 정책을 좀 완화하려 한다면 혹은 교회로서 시간적 여유를 얻어보려는 것은 결국 양심으로서 국외에 있는 입장에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것이 이 밖에 토론하여야 할 다른 문제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머무르겠다. 그것은 즉 만일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산다고 하면 장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것이다. 이 공산주의 태도는 어디에서인지 과연 생기코야 말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비인도적인 것은 물론이요 또 지나친 이론적 계획으로서 인류역사가 오래 두고 견딜수 없는것이다. 一, 二대의 동안 인간을 독재적 학살아래 신음케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그 방법이 되기에 는 너무도 피악스러운 것이다. 그런고로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았든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서 당면할것이나 낙심할 이유는 없다. 공산주의는 참담한 세계 전쟁으로나 혹은 각국에서 불기하는 무정부 혁명으로서 그 끝을 막을런지도 모른다. 또 다른면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제국의 본해작용과 또는 공산주의의 그단압적인 요소가 부식되는데 따라서 이것이 종국을 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조지, 케난씨는 외국사정법(外國事情法)一九五一年四月호에 「미국과 러시아의장래」라는 기고에 있어 이 부식이 라는 말을 써서 미래 가능성이 대하여 설명한 일이있다.

한글의 우수성을 발휘할 인체의 연구를 거듭하여 활자와, 인쇄의 혁신을하여야 하며, 한글 타오타이력을 사용하셔만, 새 개문화수준에 따라갈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냐 하는것이다. 이 공산주의 태도는 어디에서인지 과연 생기코야 말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비인도적인 것은 물론이요 또 지나친 이론적 계획으로서 인류역사가 오래 두고 견딜수 없는것이다. 一, 二대의 동안 인간을 독재적 학살아래 신음케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그 방법이 되기에 는 너무도 피악스러운 것이다. 그런고로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았든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서 당면할것이나 낙심할 이유는 없다. 공산주의는 참담한 세계 전쟁으로나 혹은 각국에서 불기하는 무정부 혁명으로서 그 끝을 막을런지도 모른다. 또 다른면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제국의 본해작용과 또는 공산주의의 그단압적인 요소가 부식되는데 따라서 이것이 종국을 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조지, 케난씨는 외국사정법(外國事情法)一九五一年四月호에 「미국과 러시아의장래」라는 기고에 있어 이 부식이 라는 말을 써서 미래 가능성이 대하여 설명한 일이있다.

이것이냐 하는것이다. 이 공산주의 태도는 어디에서인지 과연 생기코야 말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비인도적인 것은 물론이요 또 지나친 이론적 계획으로서 인류역사가 오래 두고 견딜수 없는것이다. 一, 二대의 동안 인간을 독재적 학살아래 신음케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그 방법이 되기에 는 너무도 피악스러운 것이다. 그런고로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았든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서 당면할것이나 낙심할 이유는 없다. 공산주의는 참담한 세계 전쟁으로나 혹은 각국에서 불기하는 무정부 혁명으로서 그 끝을 막을런지도 모른다. 또 다른면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제국의 본해작용과 또는 공산주의의 그단압적인 요소가 부식되는데 따라서 이것이 종국을 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조지, 케난씨는 외국사정법(外國事情法)一九五一年四月호에 「미국과 러시아의장래」라는 기고에 있어 이 부식이 라는 말을 써서 미래 가능성이 대하여 설명한 일이있다.

이것이냐 하는것이다. 이 공산주의 태도는 어디에서인지 과연 생기코야 말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비인도적인 것은 물론이요 또 지나친 이론적 계획으로서 인류역사가 오래 두고 견딜수 없는것이다. 一, 二대의 동안 인간을 독재적 학살아래 신음케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그 방법이 되기에 는 너무도 피악스러운 것이다. 그런고로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았든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서 당면할것이나 낙심할 이유는 없다. 공산주의는 참담한 세계 전쟁으로나 혹은 각국에서 불기하는 무정부 혁명으로서 그 끝을 막을런지도 모른다. 또 다른면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제국의 본해작용과 또는 공산주의의 그단압적인 요소가 부식되는데 따라서 이것이 종국을 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조지, 케난씨는 외국사정법(外國事情法)一九五一年四月호에 「미국과 러시아의장래」라는 기고에 있어 이 부식이 라는 말을 써서 미래 가능성이 대하여 설명한 일이있다.

祝

展 發 報 新 督 基

賀

技術速保
親本位
健康
永野齒科醫院
院長 永野豐生
福岡市下東町一四

大地屋靴店

主金在 燦(致炫)

福岡市金屋小路 二九
本籍慶北金泉市南山洞

各種ゴム靴都散賣
高級革靴製造販賣

やまな商會

福岡市網場町商店街

衣料品卸問屋